

## 춤의 생애에 대한 신선한 고찰

### A Fresh Exploration of the Life of Dance

최시원(Choi, Siwon)\*

정옥희(2020). 이 춤의 운명은. 열화당.

역사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술로, 춤도 원시시대의 벽화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대한 분량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춤은 현장성을 지닌 예술이므로,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지기 쉬운 속성을 지녔는데, 벽화, 회화, 역사서의 한 귀퉁이 등 어떠한 형태로든 기록이 남아 오늘날까지 춤 역사의 한 장으로 우리에게 회자된다는 것이 매우 유의미하다.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춤 현장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쉬워졌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춤의 양과 기록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재현에 대한 의미를 곱씹게 하고 있다.

그동안 춤의 역사는 작품의 초연을 중심으로 기술 되어오곤 했다. 초연에서의 작품의 형식, 내용, 안무자의 안무스타일, 현장에서의 반응 그리고 이것이 춤의 통사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닌 작품인가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기존의 춤 역사서의 일반적인 패턴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의 역사서에 기록된 춤은 당대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수많은 추어지고, 아류가 발생하고, 재해석되었기 때문이지만 초연의 기록 그 이후에 대한 고찰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았다.

이 책은 이러한 의미에서 춤의 초연에만 집중하지 않고 재현되어지고 회자되어지고 고수하거나 변화해갔던 춤의 생애 전반에 대해 주목한다.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태어남(초연) 이후의 과정(생애)에 대하여, 따듯하게 기술하고 있다. 덩덤한 문체 기술된 이 책은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기술되어 있으며, 간략하게 춤의 통사를 설명하고, 열 두편의 작품을 선정하여 그 춤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이 책을 선정하여 서평을 쓰고자 한 이유이다. 또한 이렇듯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지녔다는 특성 외에도 단순 춤 역사의 기술을 넘어 춤과 안무자(초연자)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며, 초연의 현장성을 잘 살리는 것이 재현의 목적인다고 생각해왔던 일반적인 통념에 신선한 시각적 전환을 가져다주는 저자의 시각이 신선하다.

이 책에는 총 열두 편의 춤이 소개되어 있다. 소개된 춤은 필리포 탈리오니의 「라실퍼드」, 마리우스 프티파의 「백조의 호수」, 로이 풀러의 「뱀춤」, 미하일 포킨의 「불새」, 바츨라프 니진스키의 「봄의 제전」,

\* 이화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 경인교육대학교 강사, sky8928@hanmail.net

한성준의 「학춤」, 캐서린 던햄의 「사우스랜드」, 앨빈 에일리의 「계시」, 이본 레이너의 「트리오 에이」, 머스 커닝햄의 「이벤트」, 피나바우슈의 「넬켄」, 윌리엄 포사이스의 「하나의 편평한 것, 복제된」으로, 열한 편의 외국작품과 한 편의 한국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작품 선정의 기준에 있어서 철저히 「고전」을 엄격하게 선별해서 선정한 것이 아닌, 작품의 캐릭터가 확실하고 저마다의 굴곡을 지닌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p. 13).

이 책은 각 챕터마다 작품의 초연 당시의 상황을 설명과 묘사, 사진자료를 곁들여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고, 그 이후 작품이 재현되거나, 다른 예술가들에 의해서 어떻게 예술적 영감으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책에 기술된 모든 작품이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을 들려주며 재미를 선사하였지만 특히 흥미로웠던 챕터는 한성준의 「학춤」을 바탕으로 작성된 「무대로 불러들인 학 한 마리」였다(pp. 127-146).

본 챕터는 한성준이 학춤을 창작하기 위해 뜨거운 것을 싫어하는 속성을 지닌 학을 데려다 뜨겁게 뿜힌 방에 학을 넣어두고 푸드덕 거리는 움직임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춤사위를 연구하였다는 한성준 학춤의 제작과정을 이야기로 풀어내며 시작되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전통과 창작의 경계가 갈라지기 시작한 기점에 발생한 본 작업은 어디로 귀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학은 동양에서 고결한 상징을 지닌 존재로 추앙받았기에 궁중에서도 예전부터 학춤을 추곤 하였는데 한성준은 궁중학춤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을 한 것이었다. 전통춤의 맥이 끊길 때 등장한 이가 한성준이었고 전통춤을 재창작했기에 「전통춤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는 문헌에 기대기보다는 직접 학을 관찰하며 동작을 창안하였다고 서술되어 있었다.

곧 이어 문제의식을 제기한 이유가 그 다음 소 챕터에서 바로 기술되었다. 바로 이 학춤이 무형문화재의 영광을 지녔다가 곧 그 영광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무형문화재가 사라질 수 있는 춤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되었지만 개인의 창작물을 중시하기보다는 역사적 정통을 중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궁중연구가 이흥구와 한성준의 손녀인 한영숙이 함께 『악학궤범』과 『정재무도홀기』를 바탕으로 복원한 학무에 그 영광을 내주게 되었다(p. 133).

그 이후에는 한성준의 학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큰 맥락을 기반으로 학을 소재로 추어졌던 우리나라의 춤인 동래학춤을 언급하며 한성준의 학춤과 차별성을 설명하였다. 학의 움직임을 주된 창작의 소재로 삼고 있던 한성준과는 달리 동래학춤은 학이라는 상징과 고고한 학의 자태를 기반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 이 춤은 한량들이 선비들의 멋을 드러내며 춘 춤으로, 여러 명이 함께 하얀 도포자락을 흔들리며 너울너울 추었는데, 여기에는 한량의 풍류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이 책의 필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춤이 건축가들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 한 「루이 비통 매종 서울」은 동래학춤의 춤사위와 한복의 소매 선을 반영한 지붕을 올렸다고 한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지붕은 마치 학의 날갯짓이 스친 듯 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어 조택원이 한성준의 학춤을 안나 파블로바의 빈사의 백조와 교차적으로 활용하여 제작한 작품 「학」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되었다. 이 작품은 한국 최초의 무용극이자 발레극으로, 총 4막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학을 통해 우화적으로 「동양적인 부모의 깊은 사랑」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일본제국권의 인프리카가 탄생시킨 작품으로, 동양적 소재의 무용을 폴 오케스트라의 반주로 최초로 공연했다는 점에서 일본 무용사의 이정표가 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한국 무용가들에 의해 활용되었던 다양한 학을 기반으

로 한 작품을 언급하고 있다.

이 챕터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 안무가인 퓌 페통과 마릴렌 이글레시아스 브루커 부부의 「라이트 버드(Light Bird)」로, 2015년 동래학춤에서 영감을 받아 본 작품을 선보였다고 한다. 본 작품에서는 무대에 무용수들과 함께 6마리의 학이 직접 출연하였다. 학의 움직임을 흉내내거나 조작하기 보다, 학의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끌어내어 조심스럽게 쌓은 교감을 바탕으로 학과 공존하는 무대를 만들어 내었다.

한성준의 학춤을 시발점으로 하여 작품의 생애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술하고, 학을 소재로 한 다른 춤을 소개하여 유사성과 차별성을 설명하고, 해외 활용 사례로 이어지는 서술의 전개는 읽는 이로 하여금 박제된 역사적 사실에 생생한 생동감을 불러 일으켜 당대의 상황을 상상하게 하였다. 이 챕터뿐만 아니라 다른 챕터 역시 우열을 가리기 힘들게 각자 자신만의 사연을 뽐내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재해석되어 온 「백조의 호수」, 원작은 사라지고 표절된 작품이 현재까지 살아 있는 「라 실피드」, 춤의 존재론에 관해 질문하는 「이벤트(Event)」 등등 저자는 열 두편의 작품을 통해 각자마다의 고유한 캐릭터성과 변화, 활용의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춤은 변화하는 존재이다.’라는 생각에 근거를 들고 있었다. 원작과의 유사성을 밝히는 것에 함몰되지 않을 것을 나지막히 촉구하고 있었다.

마치 작품과 같이 책에는 필자가 바라보는 춤에 대한 관점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 책의 필자는 따듯한 시각으로 온정을 불어넣어 죽고 박제된 옛 사건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되, 조용히 사건의 변천사를 설명해주는 듯한 문체는 읽는 이에게 편안하게 스며들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과거의 춤은 오늘날의 춤의 놀이터이다.’라는 책의 필자의 말과 같이, 기존의 사실은 늘 주변에 즐비하나, 내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나온다. 역사는 모두에게 공평한 소재를 바탕으로 작품의 생애를 신선하게 다룬 이 책처럼 말이다.